

# “확실한 경쟁력으로 변화·혁신 시대 돌파하겠다”

**고병일 광주은행장 취임**  
**“중차대한 시기 책임감 막중”**  
 지역 영업기반 확충 경제 활력

광주은행은 2일 본점에서 임직원 및 주요 고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4대 고병일 광주은행장의 취임식을 진행했다.  
 자행 출신으로는 두 번째 은행장이 된 고 은행장은 취임사에서 “광주은행의 55년 역사를 이어받아 100년 은행의 성장을 꿈꾸는 중차대한 시기에 은행장의 중책을 맡아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”며 “글로벌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 등 어려운 상황이지만 탄탄한 기초체력을 다져 내실 성장을 지속해 온 광

주은행이 위기를 기회 삼아 한 차원 더 높은 도약을 꿈꿀 수 있도록 앞장서 지휘하겠다”고 말했다.

더불어 모든 것이 시작된 ‘기본’에 충실할 것을 강조하며 ‘고객’과 ‘실력’, ‘확실한 경쟁력’을 기본으로 갖춰 변화와 혁신의 시대를 돌파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.

향후 추진할 주요 경영방침으로는 ▲고객과의 공감 및 소통, 고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금융지원체계 ▲지역 경제 중심축으로서 금융을 통한 공공의 역할강화 및 지역경제와 상생 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생태계 내 광주은행의 영향력 확대 ▲경영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능동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스마트한 조직 운영 ▲대면·비대면 채널, 사업·기능별로 장기 성장동력 발굴을 통한 확실한 경쟁력 확보 등을 내세웠다.



고병일 광주은행장이 2일 광주은행 본점에서 임직원 및 주요고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은행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. /광주은행 제공

이를 바탕으로 지역 내 영업기반 확충과 중소기업 지원 강화 등으로 이어지는 지역밀착 경영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는 복안이다.

한편 제14대 광주은행장으로 취임한 고 은행장은 1966년 광주에서 태어나 금호고등학교, 전남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1991년 광주은행에 입행했다.

고 은행장은 입행 후 임방울대리지점장, 백운동지점장, 개인영업전략부장, 종합기획부장, 영업1본부 부행장, 경영기획본부(CFO) 겸 자금시장본부 부행장을 거치며 탁월한 영업성과와 경영능력을 인정받아 제14대 광주은행장으로 선임됐다.

고 은행장은 32년간 근무하면서 은행업 전반에 대한 폭넓은 경험과 식견을 쌓았으며, 원만한 대인관계로 금융계 전반에 걸쳐 다양한 인맥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신망이 두텁고 탁월한 업무추진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았다. /오지현 기자

## “소상공인·중기 활력 제고 최선”

조종래 광주·전남중기청장

조종래 제25대 광주·전남중소벤처기업청장(54·사진)이 2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.

조 신임 청장은 부산 출생으로 부산고교와 중앙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뒤 행정고시 35회로 공직에 입문했다. 공임진흥청 행정사무관을 시작으로 창업벤처국 구조개선과장, 생산기술국 생산혁신정책과장, 소상공인정책국 소상공인정책과장, 중견기업정책과장, 부산중소벤처기업청



장, 읍부즈만지원단장, 감사연구원 연구부장 등을 역임했다.

조 청장은 “그동안 다양한 분야의 중소기업 정책 수립·운영 경험을 살려 고금리,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활력 제고와 애로사항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밝혔다. /홍승현 기자



2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3 신년하례식 및 증권·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참석자들이 개장신호식을 하고 있다. /연합뉴스

## “경영혁신·조직문화 개선 이끌겠다”

조영호 농어촌공사 전남본부장

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제14대 전남지역본부장에 조영호 전 자산재무처장(사진)이 취임했다.

조 신임 본부장은 화순 출신으로 광주 서석고, 조선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지난 1992년 공사에 입사해 목표·무안·신안지사장, 감사실장, 경영지원처장, 자산재무처장 등 공사의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.

경영분야 전문성과 다양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강한 추진력, 합리적인 업무처리, 화합과



신뢰를 중시하는 리더십을 겸비한 리더로 평가받고 있다.

조 본부장은 취임사를 통해 “신능정방향과 기후변화 등 경영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미래 신성장동력을 확충하고 내실경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본부를 구현함과 동시에 정렴, 안전을 위한 경영혁신과 조직문화 개선을 이끌어가겠다”고 밝혔다. /오지현 기자

## 올해 증시 개장... “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전념할 것”

코스피 0.5% 내려 2,220대 마감

한국 증시가 2일 2023년 개장식을 열고 올해 거래를 시작했다.

한국거래소는 이날 오전 여의도 서울 사옥에서 계묘년을 맞아 “2023년 신년 하례식 및 증권·파생상품시장 개장식”을 열었다.

개장식에는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,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,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

회 위원장, 이복현 금융감독원장,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등 정부·금융투자업계 관계자와 개인투자자 대표인 유남규 한국거래소 탐구단 감독이 참석했다.

손 이사장은 개장식사에서 올해 ‘코리아 디스카운트’ (한국증시 저평가) 해소에 초점을 두고 경영하겠다고 강조했다.

손 이사장은 “작년 우리 경제는 고물가·고금리·강달러 3중고에 시달렸고, 올해 상황도 녹

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”며 “안전자산으로 투자 수요가 이탈하는 등 자본시장 불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지만 당면한 위기를 넘어서 힘겨게 재도약하는 한 해를 만들겠다”고 말했다.

한편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10.73포인트(0.48%) 내린 2,225.67에 거래를 마쳤다. 코스닥지수도 전장보다 7.78포인트(1.15%) 내린 671.51로 거래를 마쳤다. /오지현 기자





**인연이 있다 결혼으로 잇다**

**딱 맞는 인연을 만나고 싶을때 “여보야”**



빅데이터와 최신 AI로 배우자 찾기



프리미엄 결혼 플랫폼 여보야 노블레스



결혼부터 출산까지 여보야가 적극 지원해드립니다

“여보야”는 새롭고 합리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결혼문화를 창조하기위해 제작된 결혼 전문 플랫폼입니다.

**가장 합리적인 결혼중개 서비스, 여보야**

- ✓ 국내 결혼중개 서비스 중 **최저가 서비스**를 제공합니다.
- ✓ 남성회원은 **2~3만원** 정도의 비용으로도 성혼이 가능합니다.
- ✓ 여성회원은 **무료**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.

**고객센터 1522-3379**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773 세정아울렛 4층

**이제 “여보야”에서 인연을 만나보세요**

다운로드하기   